



목포 신외항 기아차 선적장.

車산업 종사자 15만·수출 전국 1위... ‘오토 허브’ 꿈꾼다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밸리

③ 인프라 탄탄

기아차 광주공장 전국 최고 노동 생산성 자랑

제조업 매출 40% 차지...車산업 거점도시 견인

중국·동남아 SUV·봉고 수출 전초기지화 가능

목포항 전용부두·광양항 車환적 중심지 육성 계획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및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주력사업으로 꼽은 것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 정파권 모두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동차산업 성장 잠재력 충분=우선 광주를 자동차 산업 거점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그 중심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있기에 가능하다.

1996년 아세아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자동차 생산의 기반이 마련됐고, 이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전국 최고의 노동 생산성을 지난 공장으로 발전하는 등 광주의 중요한 경제축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13년 기아차 광주공장 증산 결과 기아차는 2014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 1위를 달성하며 현대차를 추월하는 등 국가 자동차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의 자동차 산업 인프라는 어느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사실이다. 광주 전체 제조업 고용의 23.6%인 14만8000명(2013년 기준)이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매출 역시 11조9000억원으로 광주 전체 제조업 매출의 40.6%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다.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는 통계청 조사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1999~2013년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변화상’(종사자 10인 이상)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트레일러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사업체 수는 15년 전 678곳에서 1086곳으로 60.2% 증가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분야로 149%가 늘어났다. 기타 기계 및 장비는 71.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68.1%), 금속가공(53.6%)이 늘어난 반면 의복 및 모피 업종은 64%가 감소했다.

광주의 제조업 상위 업종은 1999년 기타 기계 및 장비·금속가공·전기장비 순에서, 2013년 기타 기계 및 장비·금속가공·자동차 및 트레일러 순으로 바뀌었다.

지역 제조업 출하액도 2013년 29조원으로, 1999년보다 22조원 늘어 290% 증가했다. 출하액 증가 주요업종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799.5%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전자부품(391.2%), 금속가공(326.1%), 기타 기계 및 장비(260.7%) 등이었다.

자동차공장이 들어서면서 광주지역 산업생태계가 바뀐 셈이다.

광주는 광산업과 가전 등 일부 산업 인프라가 있긴 하지만, 실제 자동차산업이 전체 제조업의 비중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광주로서는 자동차산업 거점도시로의 도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광주의 전통 주력산업 중 하나였던 백색가전사업이 개도국으로 이전하면서 광주지역 제조업의 침체 위기에 처해 있어 시급히 제조업 부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중국 및 동남아시아 수출 전초기지화 가능=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클린디젤(SUV)과 1톤 봉고, 특수목적자동차의 수요 잠재력이 크다. 이 때문에 이러한 차종을 주로 생산하는 광주의 생산 기반을 강화해 새로운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에서 1시간도 멀어지지 않은 목포항에 자동차 전용부두가 갖춰졌으로써 물류비용 경쟁력 확보도 쉬워졌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8일 국무회의에서 ‘광양항 활성화 및 중앙기발전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광양항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벨기에 제브뤼헤항을 벤치마킹해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항이자 동북아시아 자동차 환적 중심지로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더욱 광주자동차산업밸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의 일부 컨테이너 부두를 자동차 전용부두로 전환해 광양항을 동북아의 자동차 환적 중심지로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광양항을 평택, 울산 등 전국을 아우르는 동북아 최대 자동차 환적 중심지로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부두 배후부지에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렇듯 자동차산업밸리가 광주에 조성되면 집적화를 통한 인프라 기반 확보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서해안 자동차벨트 허브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호남발전 주요 공약이었고,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한 사업인 만큼 국비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기고

튼튼한 기반 위에 꿈꾸는 광주 자동차산업의 도약

손경중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



광주의 산업근간은 남선선반과 화천기공을 중심으로 한 가공기기와 주물, 철강, 소재 가공 등을 중심으로 한 뿌리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2000년부터 지역 4대 전략산업으로 시작된 광산업을 통해 전자·가전산업과 함께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었다.

통상적으로 산업은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으로 구분한다. 제품 소재 쪽에 가까운 업종일수록 후방산업, 최종 소비자 쪽에 가까운 업종일수록 전방산업이라고 한다.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여 생산 활동과 판매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각 산업 간 상호 의존관계의 정도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라고 한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철강 등 소재 산업과 소재를 부품으로 만들기 위해 변형하는 뿌리산업, 부품을 만드는 부품산업 등이 후방산업이고, 자동차 판매업은 전방산업이 된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후방산업으로서 소재산업, 뿌리산업, 부품산업의 경쟁력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며, 자동차산업의 호황이 후방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맺고 있다.

민선 6기 광주시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육성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연간 62만대 생산 규모의 완성차 업체와 이를 지원하는 부품산업 기반, 부품산업을 지원하는 금융, 사출 성형, 소성 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접합 등 뿌리산업이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광주 뿌리산업은 화천기공과 남선선반으로 대표되는 정밀가공 기술산업의 발전과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710여개 업체에 1만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첨단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뿌리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6년을 뿌리산업 진흥 원년으로 선포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에 용접·접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뿌리기술지원센터, 완성금형 공동물류센터, 3D 금형설계 지원센터 등 3개

의 기업 지원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다. 이들 센터는 지역 기업에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기술지원, 인력양성 사업 등을 밀착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다.

이제 광주 뿌리산업은 체계적인 육성기반 구축을 통한 첨단화, 고도화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향후 자동차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광주 부품산업은 지역 내 270개 기업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차체·사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전체의 46%가 넘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해 연비 저감을 위한 차체 경량화 기술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특화된 광·전자산업과 연계한 융합전장부품 개발에도 치중하여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시장에도 대비하고 있다. 열약한 지역 부품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부품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뿌리산업과 힘찬 발걸음을 딛고 있는 부품산업 모두 자동차 생산 체제의 도시인 광주가 100만대 생산도시로 가는 길의 든든한 동반자이다. 이제 광주는 이러한 기반산업을 바탕으로 하여 2016년을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원년으로 선포하고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이 힘찬 도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청년들에게 담당하고 넉넉한 광주를 물려주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이 될 것이다. 2016년 광주자동차산업의 도약은 풍요롭고 넉넉한 광주공동체, 더불어 행복한 도시 광주의 기틀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까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